

「안토니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 1852 ~1926) 특별전시회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KBS, 주한스페인대사관 등이 후원하여 경기도와 스페인 까탈루냐주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은 물론 국내 건축 및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개막식에는 스페인 아스날연방수상과 가우디대학원의 바세고다 대학원장, 유럽상공회의소 네그레 부회장이 테이프커팅과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품은 스페인이 자랑하는 국보급 문화재로 총 180점이다. 특히 가우디성당 박물관의 작품 14점과 다나카 박사 개인 소장품 12여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개된다. 또한 가우디대학원 제공작품 154점은 가우디 작품 원본 11점과 가우디와 함께 평생을 성가족성당(Sagrada Familia Temple) 조각가로 일한 후안 마따말라의 작품 26점, 가우디의 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구 및 세라믹 제품 28점, 기타 모형물 39점, 사진 50점으로 이루어졌다.

문의: 031-249-2532, 4712

건축가협회, 10월 금요토론회 개최

10월 6일 목원대 건축도시교육연구센터 강당에서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 지회에서는 세계건축가의 날을 기념해서 「새로운 시대 '건축과 관광'」을 주제로 10월 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목원대 건축도시교육연구센터 강당에서 금요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부는 김정동 목원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남조(한양대 건축관광경영과)교수, 김봉건(문화재연구소)실장, 장현덕(문화재청)전문위원, 현영조(서울환경계획연구소)소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제2부는 김종현(배재대 건축공학과)교수의 사회로 김상태(한국관광연구원)연구위원, 양해운(한국건축가협회 역사분과위원회 부위원장)소장, 전택수(정신문화연구원 관광 전공)교수, 정보원 환경조각가, 한필원(한남대 건축공학과)교수, 조성남(중도일보 편집국장)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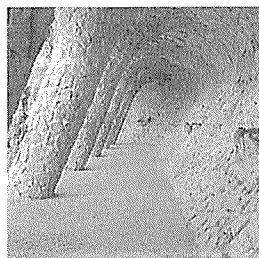
한옥문화원

개원기념 강좌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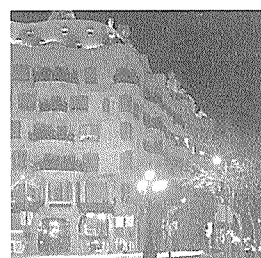
우리 민족이 지나온 사회적, 역사적 과정으로 인하여 무시되고 잊혀졌던 우리 문화와 한옥이 지니는 가치를 널리 알리고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옥문화원'이 목수 신영훈씨의 노력으로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개원됐다.

최근 대영박물관 내에 한옥, '사랑방' 제작을 총지휘하기도 한 신영훈씨의 평생의 자료와 식견을 바탕으로 개원한 한옥문화원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강연을 유치, 본격적으로 우리 한옥을 연구 교육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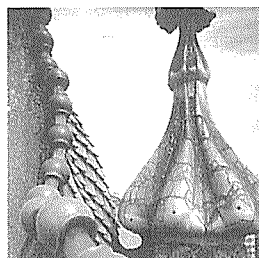
한옥에 담긴 우리 기층문화 읽어내기부터 일반인 대상의 집짓기와 전문인 양성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 한옥문화원의 강좌 개설과목은 한국건축의 조형사상, 한국건축의 역사, 한국건축의 법식과 조형체계 등이며, 2년 과정의 전문인 양성반을 이수하고 문화원의 심사를 통과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도 수여한다.(02-562-0303)



구엘공원



밀라저택



바뜨요 저택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안토니 가우디

「뉴욕 브루클린 하이츠 리버 공원」 국제 현상 설계

11월 20일 등록마감

USA 학회(도시 연구 및 건축 학회: Urban Studies and Architecture Institute)는 2000년도 국제 설계 현상 경기(건축, 도시계획, 조경계획 분야)를 실시한다. 이번 현상설계 경기는 뉴욕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3차원적 설계 현상 경기로, 뉴욕 베이와 맨해튼이 내려다보이는 강변을 대지로 하고 있다. 뉴욕 시에서 향후 개발 예정 중인 이 대지에 대해 새로운 도시 계획 개념을 제시하는 설계 경기이며, 뉴욕 스케일에 맞게 뉴욕 베이를 공공 광장으로 확립시킬 수 있도록 '도시벽'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수직적 공간 조직, 동선 체계, 수직 정원 개념들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세계 도시들의 강변 계획에 새로운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상: 건축가 부문, 학생 부문
- 제출 규격: 24"x36" 패널 3개 이하
- 흑백 도면 및 사진 사용 가능, 영문 250 단어 이하의 개념 설명서
- 상금: 1등 \$3,000.
총 상금 \$20,000.
- 등록비: \$150. 등록 원서와 함께 발송.
- 일정:
 - 등록 시작 - 2000년 7월 15일
 - 등록 마감 - 2000년 11월 20일
 - 등록 후 60일 이내에 응모안 제출
 - 응모안 제출 마감 - 2001년 1월 26일
 - 수상작 발표 및 전시 - 2001년 2월 9일
- 주소: USA Institute/Continuing Education: 10 West 15th Street, Suite 1126 NYC, NY 10011-6826, USA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

건교부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양식 신설 등 일부 변경

앞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 설치계획서 양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차로에 직각으로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할시 6m 이상의 차로를 당해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인테리어디자인공모전

한샘 홈페이지 통해 행사진행

주방·인테리어 가구 주식회사 한샘이 '동과 서를 넘어서는 디자인(Design beyond East & West)'을 주제로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을 연다. 대상 2만 달러를 비롯해 총5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펼치는 이 공모전은 공동 주택 단위세대 평면설계 부문과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 가구 및 가정용 소품 디자인 부문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2001년 7월16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한샘 측은 국내외 유명 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5명 정도를 심사위원으로 구성, 엄정한 심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입선작 실물 품평회를 거쳐 이의 제품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한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www.hanssem.co.kr, 02-590-3472)

승강기기술세미나

10월 13일 오후 1시 건설회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오는 10월 13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건설회관 2층에서 승강기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승강기관련 종사자, 승강기제조 및 보수업체를 대상으로 승강기신기술 및 신제품(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소개와 승강기검사 기준 개정부분 해설이 있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esi.or.kr)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대 건축과·건축전문대학원 2학기 특강 및 세미나

11월 24일까지

경기대 건축과와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건축가로서 건전한 의식과 실천을 위하여 이 시대 예술가, 건축가, 지식인과 함께하는 공개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캠퍼스(지하 세미나실)와 수원캠퍼스(건축과 시청각실)에서 실시된다. 문의: 경기대 건축과(02-390-5150, 031-240-9705)

- ▷SAK특강 (서울 17:30, 수원 17:00)
- 9/20(수원): 부르노 후레스키(건축가)/ 경기대마스터플랜 및 근작
- 9/21(서울): 한충완(재즈 뮤지션)/ 애드립
- 10/18(수원): 전인호(건축가)/ Context+Test
- 10/19(서울): 김정란(시인)/ 비어있는 중심

- 11/16(서울): 김홍준(영화감독)/ 영
화속의 다의성
- ▷GSAK특강(17:00~19:00)
- 9/15: 홍가이/ Digital World
- 10/27: 조성룡/ Recent Works
- 11/10: 황 두 진 / 건 축 남 녀
Architecture and Gender
- 11/24: 조병수+Clar Llewlyn(몬
타나대학)/ Recent Works
- ▷GSAK세미나(12:30~13:30)
- 9/27: 배병우/ 배병우의 사진세계
- 10/11: 서용구/ 진실의 순간
- 10/25: 이석연/ Film and Works
- 11/ 8: 이강현+이영범/ Nietzsche's
Labyrinth

함성권, 전 건축학회장 별세

향년 82세

함성권(한양대 명예교수, 가협회 명예 이사) 전 건축학회 회장이 지난 9월 12일(화) 향년 82세로 운명을 달리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함전회장은 지난 8월 4일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쓰러져 줄곧 의식불명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족은 미망인 이계옥 여사와 3남 2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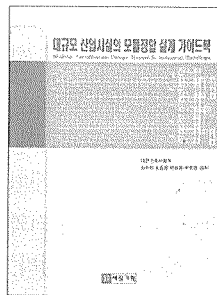
발인은 9월 16일(토) 오전 9시에 있었으며, 시신은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공원 묘원에 안장됐다.

한편, 대한건축학회는 16일 장지에서 간단한 추모행사를 가졌다.(02-525-1841)

신간안내

대규모산업시설의 모듈정합설계 가이드북
탈문맥
구조의 구조
OUT-8인의 도시·건축이야기
유럽의 병원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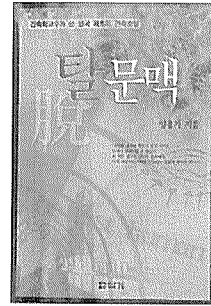
▷대규모산업시설의 모듈정합설계 가이드북



이 책은 지난 99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규모 산업시설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관한 설계매뉴얼로써 본문(제1부~제5부)과 부록(1~4)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건축표준화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대규모 산업시설의 모듈정합 설계방법과 설계예시도를 수록하였고, 부록에서는 모듈정합설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별 국가기준과 규격 등을 종합하여 소개함으로써 실무 활용성을 적극 제고하였다. 특히, 이 책은 건축관련분야(업계-생산·설계·시공·유지관리, 학계, 연구계, 공무원 등)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건축모듈, 표준화, 부품화, 오픈빌딩, 개방형시스템 등에 관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김수암·김홍용·박성환·박준영 공저/1만2천원/288페이지/도서출판 세림기획 펴냄 (02-2272-5068)

▷탈문맥



이 책은 한국 최초의 건축SF소설을 표방하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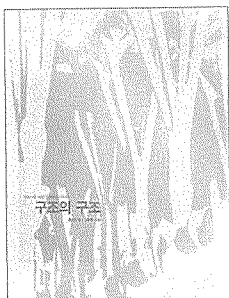
한국을 탈문맥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탈문맥의 야심과 이에 맞서는 THF, 이들은 세계의 거대한 두세력으로 한국지배를 위한 고도의 치밀한 공작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여 한국의 문맥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건축가 김돈근이 서울을 배경으로 한국의 맥을 차단하고 있는 중심건물을 찾아 폭파하는 과정이 영화처럼 스피디하게 전개된다. 건축인에게 친근한 언어들이 등장하고 실제지명과 한국의 맥을 끊는 건축물들을 자연스럽게 연상해 볼 수 있어 재미를 더해준다.

저자는 소설의 기획의도를 · 한국 최초의 건축소설에 도전한다. · 잘못된 건축이 국민의 정신세계마저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 SF적 요소를 가미하여 스타일있고 흥미 효과를 높였다. · 결국 앞으로 세계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강한 암시를 담고자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 양용기는 건축학교수로서 “왜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진정한 건축언어가 없을까?” 뿌리도 근거도 사상도 철학도 없이 생겨나는 서양건축물이나 아파트들이 우리국민에게 얼마나 비참조적이고도 획일적인 사고를 가져오는지를, 잘못된 건축물이 국민의 정신세계조차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탈문맥”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양용기 지음/8천원/416페이지/도서출판 담게 펴냄(02-537-0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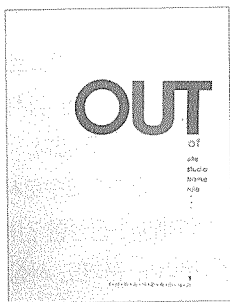
▷건축가를 위한 건축구조 이야기
구조의 구조



이 책은 건축구조에 대한 기초지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대까지 서양건축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글을 통해 시대마다 흘러온 양식의 변화를 '기술'이라는 잣대로 설명한다. 평상시 저자는 현대건축에서 공통언어로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관점은 함인선의 건축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풍부한 사진과 그림이 수록돼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그동안 수식으로 가득차서 어렵고 딱딱했던 구조에 대한 편견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한다.

함인선지음/1만6천원/246페이지/도서출판 발언 펴냄(02-929-3546)

▷OUT-8인의 도시·건축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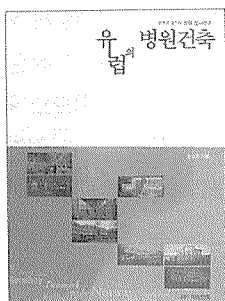


이 책은 강대화 등 8인의 전시가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고민했던 건축과 도시에 대해 건축 이외의 다른 분야와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OUT of site, studio, frame, rule}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이 책에는 건축가들이 전시라는 형식을

택하게 된 배경과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들을 만들기까지 작가들의 생각이 담겨있다. 이 책에는 전시회의 주제와 관한 철학, 사회학, 미술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담론을 함께 실어 건축가들과는 다른 눈으로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는 그들의 말들이 내부적으로는 건축, 미술, 인문학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통로가 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대중들에게 건축과는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을 시도하고자 한다. 저자 8인은 이 책이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도시와 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강대화 외 지음/1만원/89페이지/도서출판 비온후 펴냄(051-464-4115)

▷유럽의 병원건축



병원건축물에 대한 답사 연구서가 발간됐다. 단순한 답사보고서가 아니라 연구와 병행된 것으로 그 내용이 병원건축계획과 설계에서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들과 유럽의 병원들이 이들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한 관계자의 노력과 환경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책은 저자가 포스트닥 연수과정 통해 1년동안 병원건축계획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유럽의 우수한 병원 50여 개를 연구 답사한 결과를 묶어낸 것으로서 일반적인 답사가 아닌 연구자의 시각에서, 건축계획을 하는 시각에서 체크해야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답사지는 벨기에,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선진국으로 각국의 의료체계에 따른 병원시설의 성격과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 할 수 도 있으며, 특히 수록된 사진자료와 답사기의 꼼꼼한 내용은 책의 내실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사진자료는 전문작가가 아닌 답사자로서의 분주함과 어수선했음이 느낄 수 없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저자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병원건축은 건립과정에서 건축가의 노력만으로는 우수한 작품이 나오기 어렵다. 의사, 간호사, 기술직, 관리직 등의 높은 안목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책이 건축가뿐만 아니라 의료관련 전문가들의 병원건축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적고 있다.

문창호 지음/2만원/239페이지/(주)이상 건축 펴냄(02-549-5383)